



계십니까~

왔습니다
키요씨~

안녕!
그냥 문 열고
들어와!

새해 복
많이 받아
범이~

응
너도

자고
갈 준비는
해왔지?

당근
이지

응, 가끔 해
함 뜨실?

별로
옛날에나
많이 했지
이젠 질렸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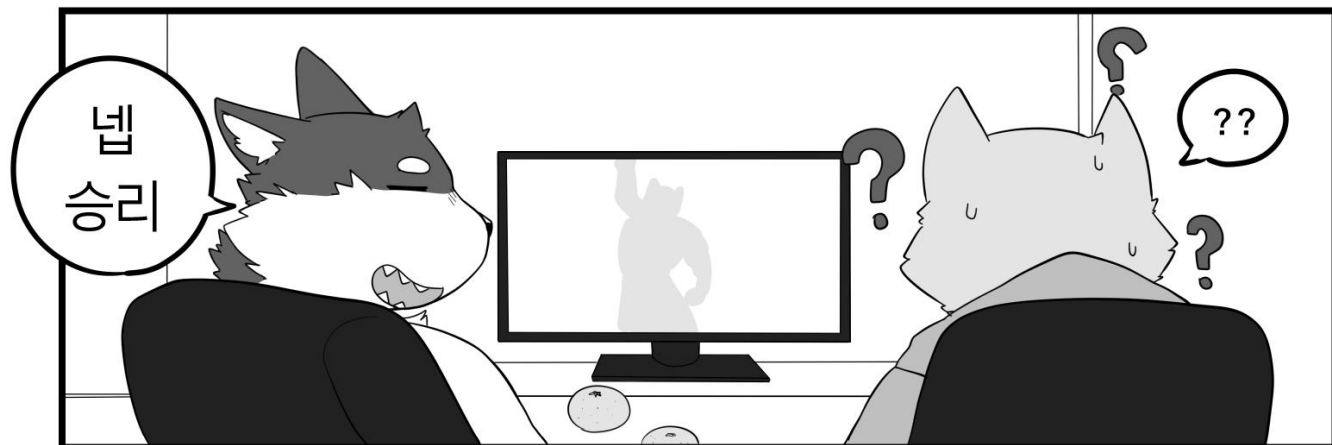
영
붕권?
하네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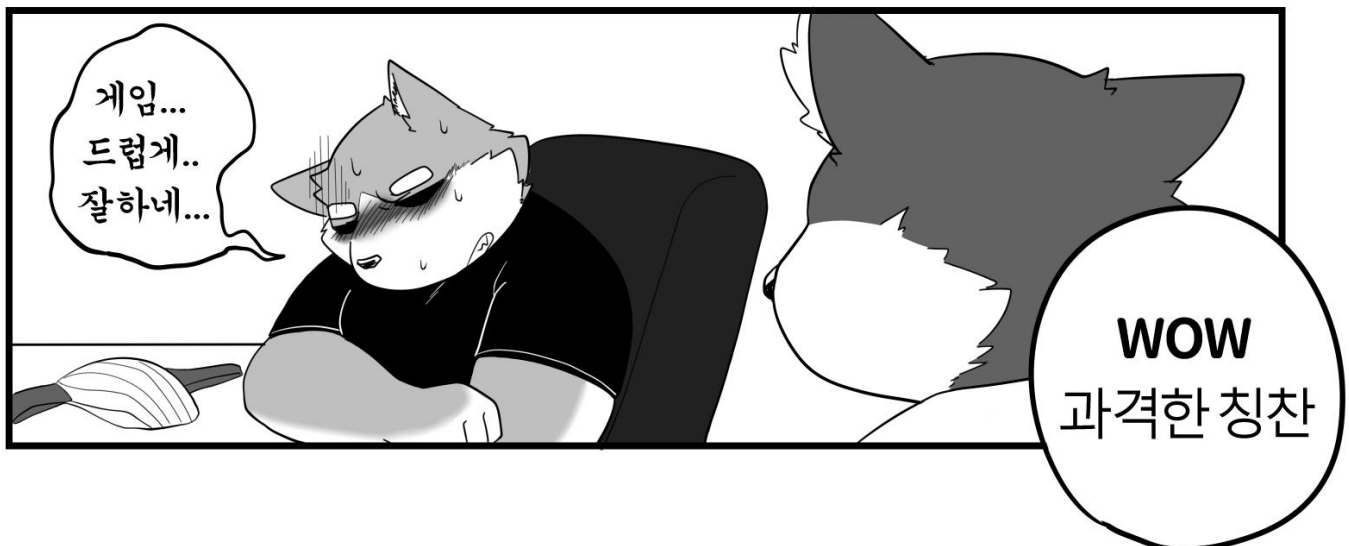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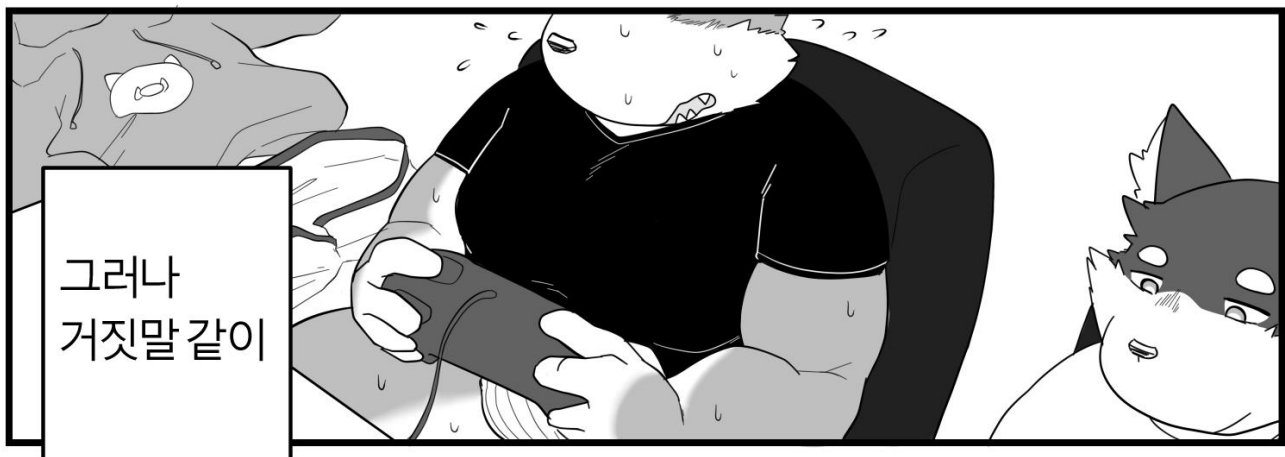
쫄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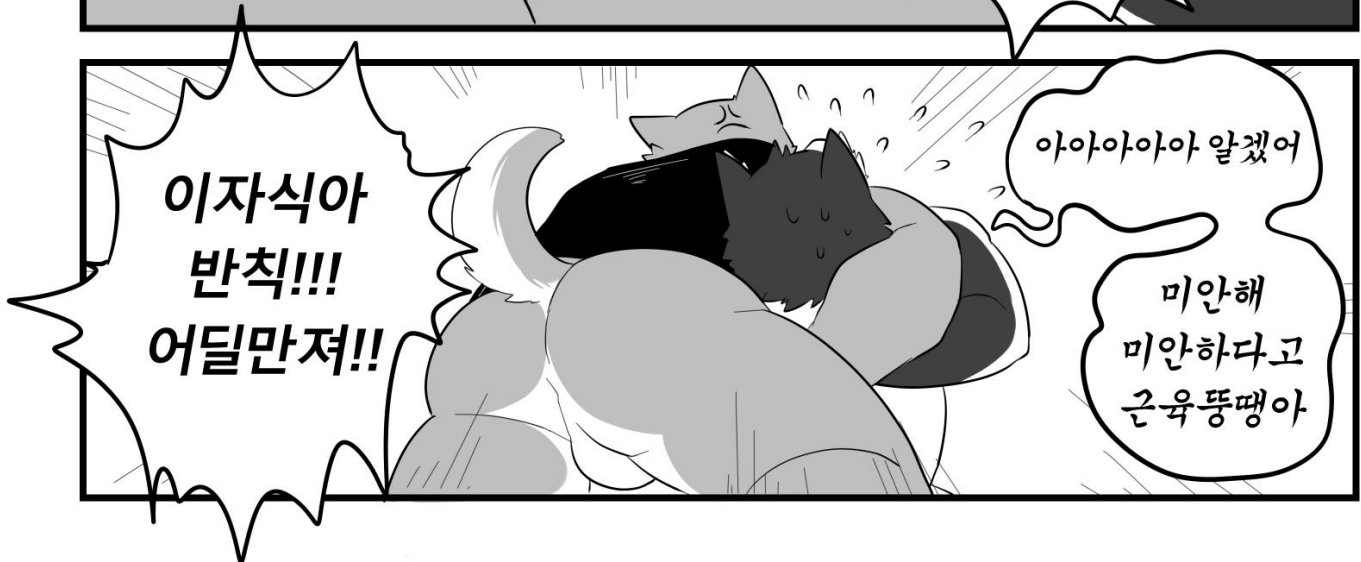
ㅎㅎ

패드 짹
잡아라

기꺼이
박살내주지
애송이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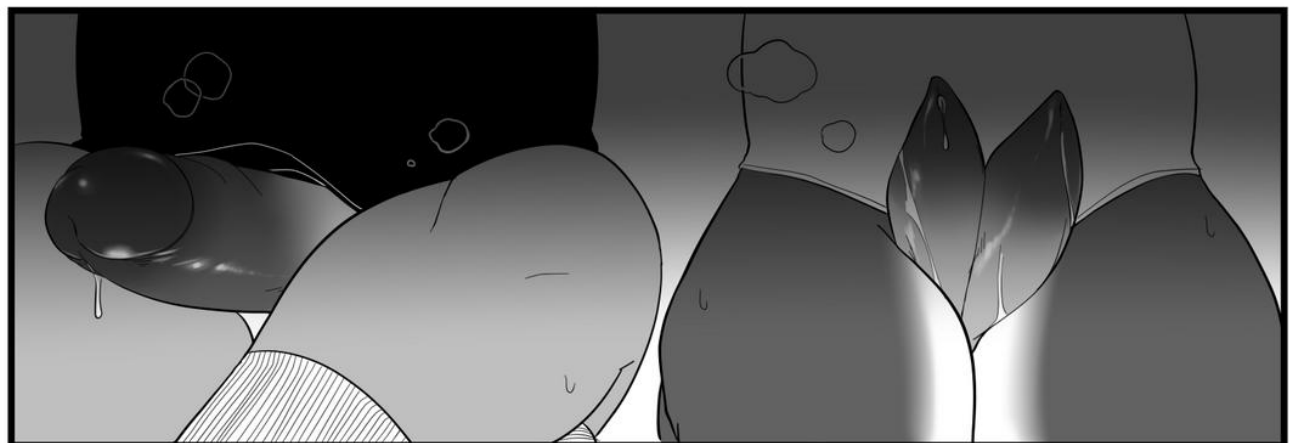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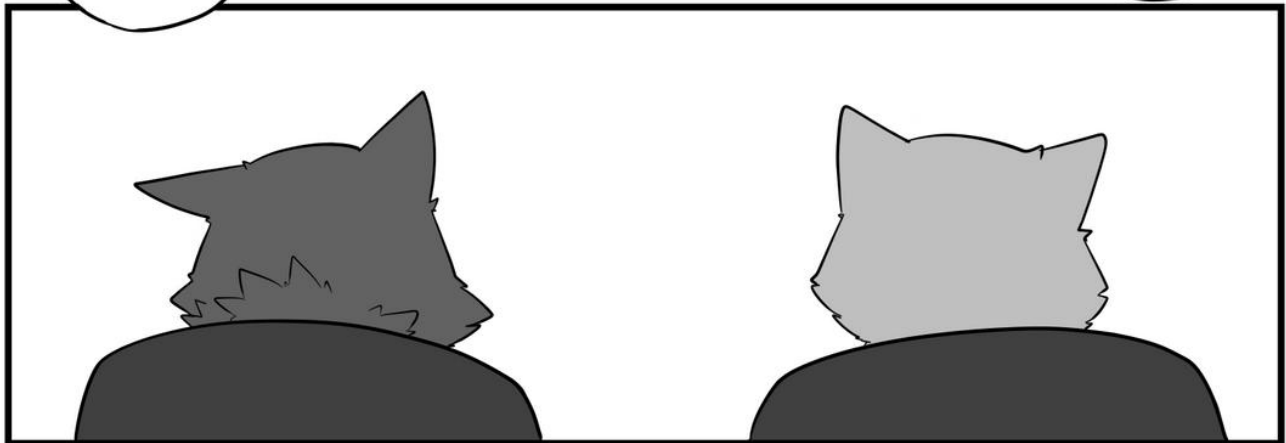


...차라리
바지도
벗지 그래

축축해
보이는데

...그럴까







비겁하게
격렘말고
레이싱으로
승부보자

레이싱게임
없어,
멍청아! 강해

문질

문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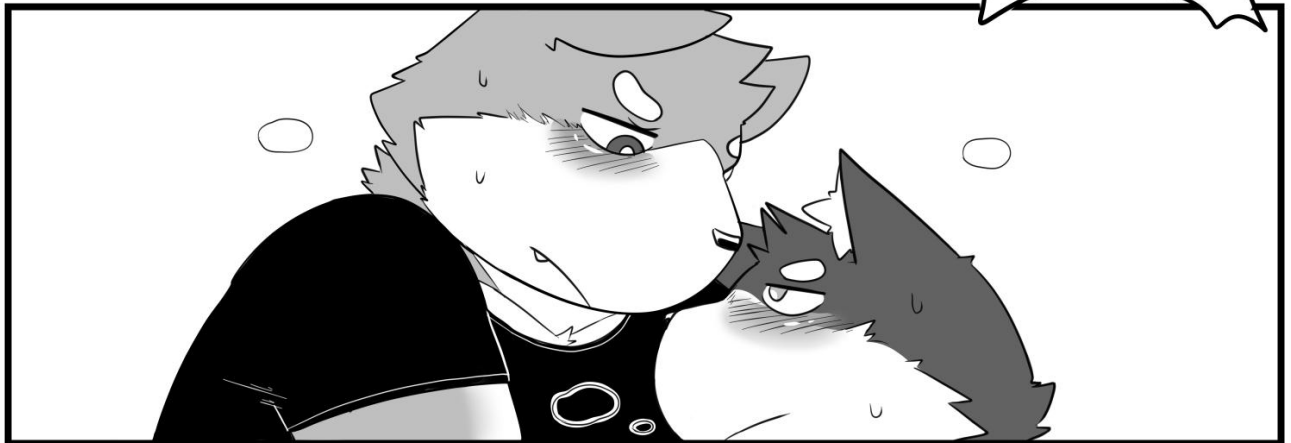
야
지점도록
만졌다며

아~
발로 만지는건
많이안했으니까..

죄,
죄송..

얼씨구





fin